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음 2월 19일)

제20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번 국제영화제 상영작을 발표합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3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종직 집행위원장이 영화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 송하진 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

“전북대도약 시대 열어 40년 경력 전문인으로 민선 7기 성공 이룰 것”



송 지사는 “지난 4년간 전북을 구석구석까지 살피며 전북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키워가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을 바꿔왔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성과물로는 ▲익산 백제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가시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동화농민역명기념공원 지역권산림치유원 조성 ▲국립으로 이루어진 점 ▲국가예산확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2023 세계캠버리대회 유치 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오가고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체화한 40여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역량과 민선 6기의 정책 진화로 민선 7기의 정책 성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삼각농장은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로, 토탈관 광은 여행체험산업 일번지로, 탄소산업

은 융복합부품소재 산업으로 진화시키고, 새만금은 4차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캠버리를 성공적으로 준비와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 철도 등 SOC를 완벽히 구축해 성장에너지의 출력을 높이고 고루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성장과 행복의 나무가 전북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무성한 열매와 잎을 맺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믿고 미래 천년 전북의 웅비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

## 6일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국정농단>

법원에서 허용... 이번이 처음 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

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전무하다. 개정 이후 이재웅(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

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앓을 사이이 공인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 문 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

## “진상규명·명예회복 중단 혹은 후퇴 없을 것”

“4·3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 못할 분명한 역사 치유 위한 정부 조치 최선... 배상, 국회와 협의”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3일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이렇게 밝힌 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제주도민께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행복의 나무가 전북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무성한 열매와 잎을 맺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믿고 미래 천년 전북의 웅비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추념식이 4·3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들과 생존희생자들

를 위로하고, 배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매일 INDEX			
2면	- 허림, 남원에 금강산업 투자	3면	- 도의회 신임 의장에 양용모 의원
7면	- 부승 '꿈에 그린' 건물 5일 오픈	16면	- 군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